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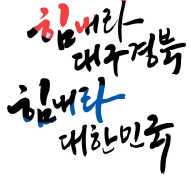


|   |                 |  |   |   |
|---|-----------------|--|---|---|
|  국토교통부 |                 | <b>보 도 자 료</b>   |   |  |
|   |                 | 배포일시   | 2020. 4. 24(금)<br>총 2매(본문2)   |   |
| 담당<br>부서  | 국토교통부<br>도로정책과  | 담 당 자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과장 이상헌, 사무관 신우철, 주무관 이명신</li> <li>• ☎ (044) 201- 3874, 3883</li> </ul> |   |
|   | 한국도로공사<br>휴게시설처 |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처장 김성진, 팀장 이은성, 차장 윤덕진</li> <li>• ☎ (054) 811- 2331</li> </ul>         |   |
| 보 도 일 시   |                 | 2020년 4월 27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br>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6(일) 11:00 이후 보도 가능 |   |   |

##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관련 업계에 총 1,914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.

- 버스업계, 대구경북지역 파견 의료인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33억 원 감면
- 매출액이 급감한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총 1,881억 원 지원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한국도로공사(사장 김진숙)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인한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, 임대보증금 반환·입점매장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총 1,914억 원(통행료 : 1,224건, 33억 원 / 휴게소 업계 지원 : 1,881억 원)을 지원했다고 밝혔다.

□ 지난 3.18일 노선버스 대상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후 한 달간 총 1,224건, 33억 원\*(일일 약 1억 원)을 면제하여 승객 감소로 인한 버스업계의 악화된 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기여하였다.

\* 재정 고속도로는 27.2억 원, 민자 고속도로는 5.6억 원 면제

□ 또한, 매출액 감소\*로 어려움을 겪는 휴게소 업계 지원을 위해 운영업체가 도로공사에 납부하는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토록 하였으며,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50% 반환과 더불어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게 납부하는 수수료를 30% 인하하였다.

\* 전년 동기대비 매출액 : (2월 4주) △67% → (3월 4주) △43.6% → (4월 3주) △35.6%

- 임대료 납부시기 유예는 2월~7월 간 당월 납부 임대료를 6개월 이후에 납부하는 것으로, 2월~3월분 임대료 약 285억 원의 납부를 6개월 유예(휴게소 168개소, 주유소 169개소가 요청)하였으며 7월까지 유예하는 임대료 규모는 약 1,000억원 규모이다.

※ 임대료 유예분 실 납부시기


|      |         |       |        |  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|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|
| 구 분  | '20. 2월 | 3월    | 4월     | ⇒ | 8월        | 9월        | 10월        |
| 임대료  | 8월 유예   | 9월 유예 | 10월 유예 |   | 8월분 + 2월분 | 9월분 + 3월분 | 10월분 + 4월분 |
| 납입시점 | 9월      | 10월   | 11월    |   | 9월        | 10월       | 11월        |

- 또한, 도로공사는 운영업체가 기 납부한 임대보증금 중 절반을 환급하기로 결정(4.3)하였으며 총 292개소(휴게소 149, 주유소 143)가 신청하여 1,038억 원을 환급하였다. 4월 말까지 누적 1,569억 원을 환급하고 상반기까지 총 1,851억 원을 환급 완료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국토부는 운영업체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영세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도로공사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합심하여 입점매장이 운영업체에 납부하는 수수료 30% 인하를 실시\*하였다.

\* 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이사회에서 의결(4.2)

- 이는 지난달 27일 김현미 장관이 휴게소 운영업체, 입점매장 근로자 등과 함께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업계 간담회의 후속 조치로서, 기 납부한 2월 수수료부터 인하를 적용하여 입점매장에게 약 30억 원을 환급 중에 있다고 밝혔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용석 도로국장은 “임대보증금 반환을 통한 휴게소 운영업체의 긴급 유동성 지원과 함께, 도공과 운영업체의 고통분담을 통해 마련한 입점매장 수수료 환급을 조속히 시행하여 입점매장의 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”이라며, “휴게소 업계가 상생협력의 힘으로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”고 밝혔다.

|   |   |
|---|---|
|  |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신우철 사무관 (☎044-201-387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 |
|---|---|